

‘천사재활주간보호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기존 ‘천사주간보호센터’가 ‘천사재활주간보호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낮 동안 어르신을 정성스레 돌보면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 20년 경력의 법인 재직을 경험 삼아 더욱 더 ‘건강한 노후 돕는 돌봄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규 대표/원장

본 센터가 속한 성산면 지역을 넘어 고령군에서 ‘재가통합돌봄’의 국가 노인복지정책 추진 방향처럼 지역사회에 어르신 돌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29명의 정원으로 하루 삼시세끼 식사제공과 어르신 건강돌봄, 맞춤형사의 주4회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공연 봉사, 직원들의 매일 프로그램 제공, 목욕과 세탁, 안전한 송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을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더욱 안전하고 노년의 삶에 동반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돕는 ‘천사재활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시면 포근하고 정 넘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언제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본 센터의 주변에는 4만여평의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앞 52대의 주차장 부지와 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참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5년 8개월의 요양원장 재직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재가복지시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르신 노년의 삶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대표/원장 이력>

- 사회복지학 석사
- 전 고령영생요양원장
- 전 경북노인복지시설협회장
- 전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사
- 전 호산대 Life휴먼복지학부 겸임교수
- 전 고령군장기요양기관협회장
- 전 경북광역치매협의체 위원
-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 고령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고령군지 ‘사회복지, 보건, 체육’ 편 집필